

이승만의 민족운동에 나타난 기독교 국가건설론과 사회윤리*

김명배 (숭실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이승만의 생애와 독립운동

III. 이승만의 민족 운동에 나타난 국가건설론

1. 민주공화제 국가건설론
2. 기독교 국가건설론
3. 친미외교독립론

IV.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

1. 자유와 평등의 실현
2. 구원론적 개인윤리
3. 역사 변혁적 사회윤리

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한가람역사연구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 프로젝트 <일제하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의 『독립운동가들의 좌우 국가건설론』 가운데 이승만의 국가건설론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하였음을 밝힌다.

• ABSTRACT •

A Study of Social Ethics in Seung-man Lee in terms of his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Idea of Christian Nation Establishment

Kim, Myung Bae

This research paper concentrates on the basic idea of n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social ethics thought of Lee, Seung-man. President Lee had habituated the system of Western democracy and republic as he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Club and the *Pai Chai Hak Dang*. He wanted to build Korea as 'a role model for democracy in Asia,' and 'the parliamentary democratic republic' which guarantees individual liberty and equality as best as it can. In addition, he advocated the theory of Christian nation as he accepted the idea of Christendom and American Christian democracy from the missionary of the U.S.A. after he converted to Christianity at *Han-Sung* prison. He wrote his thought of this in the journal, *Shin Hak Wol Bo*, and his book *The Spirit of Independence*. In particular, he tried to build Korea like 'the Christian nation in Asia,' as he pursued the value of democracy of the Western society as he pointed out that Korean Christian Leaders, especially, pastor groups, initiated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Finally, he developed his social ethical thought based on his idea of the individual liberty and equality, the Christian ethics in terms of the doctrine of salvation, and the reformatory Christian ethics in history.

Key words: Lee Seung-man, Christendom, democratic republic, independence movement and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구열강에 의해 국가주권이 위협을 받게 되자, 한국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보수적 관리들은 위정척사론을 통한 전통왕조의 부흥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지방 양반들은 의병을 일으켜 외국군대와 맞섰다. 그리고 농민들은 외세침입에 대항하여 동학운동을 일으켰으며, 진보적 지식인 그룹인 개화파는 민족국가에 대한 서구식 제도와 사상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민족의 배타성, 독립 또는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보편적인 범주 안에 포함시켜 왔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한국인들은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민족적 저항운동과 변혁운동을 시도함으로써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는 상실된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애국계몽운동과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는 국내적으로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양성운동과 국외적으로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도 한국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일부 민족주의 우파 세력의 자치론 주장과 친일화 경향이 있었지만,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을 거치면서 일제의 노골화된 식민지 수탈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들은 신간회를 비롯한 좌우합작운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근대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민족주의 혹은 민족운동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근대사에 관한 연구들은 민족주의 혹은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사실상 한국근대사 연구는 곧 한국 민족 운동사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운동을 단순한 항일운동으로 보지 않고, 그 성격을 분석하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우선 한국 민족주의 발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해온 ‘이데올로기’나 그 사회계층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다. 또한 항일 독립운동의 각종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민족운동의 성격 규명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수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국권의 회복 후에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국가건설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¹⁾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의 실제 파악을 위한 세 가지 시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운동가들의 국가건설론이다. 그 이유는 사실 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의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은 주권을 회복하여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역사학계는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좌·우익의 민족운동 단체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가건설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조소앙과 김구, 김규식, 안재홍 등의 국가건설론을 다루어왔다.

이같은 이와 같은 수많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한국근현대사에서 가장 막중한 위상을 차지하는 우남 이승만의 민족운동과 그 과정 속에 나타난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승만은 일찍이 감리교 최초의 내한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기독교 정치인이었다. 특히 이승만은 배재학당과 한성감옥에서 기독교적 신앙과 세계관을 터득하였고, 독립운동시기에는 이를 근거로 기독교 국가건설론

1) 김창수,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9.

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 1948년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구성되자, 이승만은 윤하영 목사에게 제헌의회 개원식에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민족운동과 그의 국가건설론은 최근 그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평가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해방 이전 이승만이 주장했던 국가건설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난 사회윤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이승만의 기독교 개종과 독립운동 초기에 기록된 그의 책들과 서한집, 그리고 유고집 통하여 그의 독립운동의 방략과 정책에 나타난 국가건설론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 자료들²⁾을 통해 그의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이승만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이승만의 초기 기독교 수용과정과 그의 독립운동 내지 민족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건설 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에

2)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투옥된 후 집필한 원고를 1910년 『독립정신』으로 출판하였고, 1913년에는 105인 사건으로 미국 망명길에 올라 하와이에서 『한국교회 꾀박』을 출판하였다. 그 후 1919년 4월부터 1920년 말까지의 시기에 많은 영문 자료들을 남겼다. 그 자료들은 두 종류인데, 첫째로 임정수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등 대한제국의 체약국 원수들과 일본 천황에게 보낸 외교문서, 상해 임정의 임시 의정원 의원들에게 보낸 보고서 등 일련의 공문이다. 두 번째는 그가 서재필, 김규식, 정한경 등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승만과 협력하여 구미위원부를 이끌어갔던 인사들과 주고 받은 서한들이다. 이들 공문과 서한 이외에 이승만이 영문으로 쓴 일기,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대한인대표자대회 회의록', 그리고 서재필이 '대한공화국 통신부'를 통해 발간한 영문 잡지 대한평론(Korea Review) 등이 있다. 특별히 1919년 4월 14일부터 1919년 10월초까지 약 반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경', '국무총리' 내지 '임시대통령' 명의로 11개의 영문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7개는 외교 문서, 2개는 호소문/선언서, 1개는 보고서, 나머지 1개는 연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들은 이승만의 초기 사상 특별히 그의 독립운동의 방략과 정책 그리고 국가건설론이 잘 드러나 있다.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이승만의 생애와 독립운동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陵內洞)에서 조선의 왕족이라고 주장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인 이경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³⁾ 그 후 이승만은 1895년 4월 2일 아펜젤러의 배재학당에 입학하였고, 배재학당에서 1896년 귀국한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서양인들과 서구 학문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승만은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에 가담하여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청년 연설가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배재학당에서는 협성회를 조직하여 토론회를 통하여 개화와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박영호 일파의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사형언도를 받는 등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1904년 7월 8일 특별 사면령을 받고 석방되었다. 1904년 10월 15일 남대문의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교장직에 취임했으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곧 사임하였다. 이때 그는 고종 황제를 만나보라는 민영환의 요청을 거절했고, 고종이 보낸 궁녀 역시 만나주지 않았다. 1904년 11월 4일에는 독립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민영환의 의뢰로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일본 고베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해 12월 31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哲學)을 공부하여 1907년에 학사 학위(Bachelor of Arts)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M.A) 학위를, 그리고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

3) 이정식,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23.

은 영세중립론》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Doctor of Philosophy)를 받았다. 1910년 한국으로 돌아가 YMCA에서 교사로서, 이어 YMCA 청년부 간사로 취임하여 기독교를 선교하였다. 1912년 4월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고, 1913년 귀국을 포기하고 옥중 동지인 박용만의 초청으로 하와이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는 하와이에서 105인 사건을 폭로하는 《한국교회 핍박》을 출간하였고, 감리교 부속의 한인 중앙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 활동과 실력운동 양성에 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감리교단, 그리고 박용만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 박용만과 결별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이승만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민족지도자로 부상하였다. 그는 3.1운동의 열기가 국내외 각지로 퍼져가던 1919년 3-4월 사이에 수립된 여러 임시정부들에서 수반급 지도자로 추대 혹은 선출되었다.⁴⁾ 이승만은 3.1 운동이 있는 직후 인 1919년 4월 5일 ‘만주 접경’에 수립된 ‘대한공화국 임시정부’의 국무경에 추대되었고, 4월 11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이어서 4월 23일에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Chief Executive President)로 추대되었다. 그 후 1919년 9월 9일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로써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였다.⁵⁾ 그러나 이승만은 1920년 말까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직에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워싱턴에 ‘임시 공사관 본부’(a Temporary Legation Headquarters)를 설치하고, ‘구미위원부’(The Korean Commission to Europe and America)로 이름을 바꾸어 미주지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상해임정요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그는 마지못하여 1921년 1월

4) 오영섭, “이승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치구상”,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69.

5) 유영익 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3.

상해에 들어왔으나 약 5개월 반 동안 잠시 상해에서 임시대통령으로 시무하였다. 그 후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워싱턴군축회의(The 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 1921.11-1922.2)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1922년 9월에 하와이로 돌아가 상해임시정부 요인들과 갈등으로 임시의정원에 의해 탄핵 면직을 당한 1925년 3월까지 호놀룰루에 머물렀다. 이승만은 1919년 9월부터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였다.

1929년 이후 이승만은 임정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임정 구미위원부를 가동하며 미국, 유럽, 국제연맹 등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외교, 구국활동을 전개 하였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가 자금난에 빠지자, 김구는 이승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승만은 자금의 일부를 임시정부에 꾸준히 송금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독립운동을 꾸준히 펼쳐, 1932년 11월 10일에 상해 임시정부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 한국의 독립을 국제연맹에 탄원할 전권대사로 임명되었고, 이에 이승만은 국제연맹에 대한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33년 11월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녕 내각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보선되었고, 1934년 4월 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위원회 외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0년 3월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한 후, 6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다시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승인받아 외교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2월 27일 이승만은 미국 국무장관 코텔 헬에게 자신의 신임장과 임시정부의 공한을 제출하고 미국에 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43년 초 이승만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반소전선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중경(重慶) 임시정부

의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던 이승만은 33년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1945년 10월 16일 귀국하였다.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III. 이승만의 민족 운동에 나타난 국가건설론

1. 민주공화제 국가건설론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출세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것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이었다. 1885년 문을 연 배재학당은 1887년 2월 고종황제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받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정부관리로 등용되자, 이 교육기관은 정부의 관리로 진출하는 새로운 길로 부각되었다. 특히 영어의 구사는 정치적 출세의 도구로 인식되었고,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배재학당에 몰려왔다. 이승만도 이런 배경에서 1895년 배재학당 영어부에 입학하였다.

당시 배재학당의 선교사들은 학생들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승만은 오로지 영어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그는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기독교 신앙과 근본교리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생각하였다.⁶⁾ 그런데 그는 배재학당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선교 학교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영어, 오직 영어공부에 있었다. 그 야망은 곧 채워졌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영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6)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3), 41.

그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들을 깨우치고 있었다. 한국 백성들이 당한 정치적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에서 백성들이 통치자의 독재에 항거하여 자신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젊은 양반의 가슴속에 혁명에 대한 한 불길이 솟아올랐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정치원리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같이 짓밟혀 사는 백성들에겐 큰 복이다’하였다.⁷⁾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서구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터득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미국에서 돌아와 배재학당에서 가르치고 있던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가담하였고, 배재학당의 학생들과 더불어 협성회를 조직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를 연습하였다. 나아가 그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모방하여 <매일신문>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이미 서구 선교사들의 강한 영향을 받은 배재학당 시절부터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와 새로운 국가건설을 그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⁸⁾

그런데, 배재학당에서 배운 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은 이승만에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제도를 모방하도록 하였다. 그는 1919년 8월 15일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과 함께 선포한 『독립운동 지속선언서』에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등이 주장한 미국 독립선언서의 제 원칙들을 수용하고, 미국

7) R.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60-61;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42에서 재인용.

8)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43.

정부를 모방한 대의민주주의 공화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구상하였다.

우리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이상을 수용하였고 앞으로 그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과 윌슨 대통령이 세계대전 당시에 공표한 민족자결주의를 수용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워싱턴, 제퍼슨 및 링컨 등에 의해 설파 유지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제 원칙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체는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정체는 대의제이다. (3) 대한민국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4)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소청의 권리를 인정한다. (5) 귀족의 특권은 폐지한다. (6)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한다. (7) 국가의 안보와 독립 그리고 주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비군 대신에 민병대를 유지한다. (8) 소수 민족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9) 독립된 사법부를 설치한다. (10) 교육을 특별히 장려한다. (11) 사회 풍속을 정화한다.⁹⁾

이승만은 이 글에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수용하고, 3권 분립에 입각한 미국식의 대의제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이승만이 독립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을 모방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이승만의 미국식 대의제 민주 공화국 국가건설론은 이미 배재학당에서부터 배태되었다. 이승만은 구한말 과거시험에서 낙방 한 후 출세의 방편으로 입학한 배재학당에서 영어를 배움과 동시에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하여 서구의 정치체제를 접하게 되었고, 특히 자유와 평등에 기반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를 터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 유학을 통하여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승만은 자유롭게 미국의 생활과 학업을 통해 배운 서구식 민주주의 제

9) *Korea Review*, 1:8(October 1919), 13-15.

원칙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미국식 대의 민주 공화제를 새로운 대한
민국 건설의 목표로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지속선언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대의제 민주국가 건설
구상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2. 기독교 국가건설론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 또한 그가 옥중생활 중 기독교로 개종하
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1989년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에
입교한 후 한국 국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승만은 옥중 개종 후 본격적으로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으
면서 기독교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는 한성감옥에서 집필
한 원고를 1910년 『독립정신』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의 기초단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유교
(人道)의 한계를 논한 후, 이제 ‘새로운 도’, 곧 천도(天道)의 필요성을 역
설하고, 이것을 기독교라 하였다.¹⁰⁾

다만 천도가 있어서 지극히 광대하고 지극히 장원한지라. 사람이 이 도를
깨달아 행할진대 천지만물을 만들어 홀로 다스리시며 만국만민을 다 굽어 감
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보는 듯이 알 것이오. 또한 사람이 다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외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혼이 있어 이 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각각 그 죄악을 인연하여 무진한
벌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을지니 엇지 꿈결 같은 백년에 헛된 영화부귀를
탐하여 대자대비하신 천부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을 자위하리오.¹¹⁾

10)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61.

11) 이승만, 『독립정신』(태양출판사, 1925), 233.

이 글에서 이승만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 영혼불멸, 죄와 사후의 심판 등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얻고 영국, 미국과 같은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화의 본인 기독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처럼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기독교 근본교리에 대한 고백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국가건설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이 후 이승만은 한성감옥을 나온 후 1904년 도미하여 미국의 3개 명문대학에 유학하여 1910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105인 사건으로 1912년 미국 망명길에 올라 1913년 하와이에 정착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1913년에 『한국교회 필박』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한층 더 발전된 기독교 국가 건국론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105인 사건의 실상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가 신민통치 하에 민족주의 및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기독교 국가 건설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였다.¹³⁾ 이 후 이승만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인기독교학원, 한인기독교교회 및 한인 YMCA를 창설하는 등 한인 교포들을 기독교로 인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¹⁴⁾ 이러한 일련의 기독교 전도와 교육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1919년 조국인 한국을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여러 영문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드러내었다. 1919년 이승만은 미국인들에게 이 영문 자료들에서 한국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문명국가이며, 서구열강들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

12) 이승만, 『독립정신』, 234-235.

13) 신기영, 『한국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도서출판 동혁, 1995), 22-27;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73.

14)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44.

하고, 국제적 규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가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후에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의 건국이념과 제도를 모방한 아시아권내 미국의 형제 공화국이라 하였다.¹⁵⁾ 그런데 1919년 이승만은 그가 발표한 영문 자료들에서 한국에 대한 전파논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그것은 한국이 동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1919년 4월 7일 연합통신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동양 최초의 예수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4월 7일자 『신한민보』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워싱턴 4월 7일 연합통신으로- 현금 만주에서 조직된 한국 임시정부 내각의 국무경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오늘 연합통신원을 대하여 말하기를 이번 독립운동에 인도자들의 주의를 한국으로 동양의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겠노라 하더라.¹⁶⁾

그는 또한 유교 국가였던 한국이 서구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기독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였다.

한국은 대체로 기독교 국가인데 현재 기독교화가 전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7천여 명의 안수 받은 목회자들과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황실은 신과

15)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43.

16) 『신한민보』, 1919년 4월7일자. 김영우 편, 『대한독립혈전기』에서는 “대한으로 예수교 나라를 만들 예정”이라는 제목아래 “워싱턴 4월 7일 연합통신. 방금 워싱턴에 체류하는 이승만 박사의 선언을 위지하면 장차 대한 독립을 회복하여 완전한 예수교 나라를 만들기로 일반 독립운동영수들이 계획중이라더라”라고 기술했다.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8.

같이 숭배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서와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¹⁷⁾(중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은 그가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선교사들의 전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옥중 도서관에서 독서를 통하여 싹트기 시작하여 옥중 집필서인 『독립정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04년 미국에 건너간 후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심화시켰고, 1913년 미국망명 후 집필한 『한국교회 핍박』에서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이후 영문자료들을 통하여 자신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친미외교독립론

1919년 4월 이후 이승만은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만주 접경에 수립된 ‘대한공화국 임시정부’의 국무경,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추대 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상해 임시정부에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서 머무르면서 ‘임시 공사관 본부’ 또는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친미외교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그의 친미외교독립운동론은 1919년 이후에 그가 미국에서 작성한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승만은 1919년 미국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영문으로 작성한 호소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7개의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3통은 당시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보낸 것이다. 그는 미국정부와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 외교문서들에서 미국을 ‘위대하고 관대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 ‘한국과 우호조약을 맺고 선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개화를 도외준

17) 『뉴저지주 공보』(The State Gazette), 1919년 10월 14일자

나라'¹⁸⁾ 등으로 묘사하여 미국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공화국임시정부 '국무경'으로서 선임된 후, 1919년 4월 14일 미국에서 개최된 대한인총대표회의에서 「미국을 향한 호소문」이라는 글을 작성할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대미 호소문을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미국 국민이 정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고로 미국 국민의 원조와 동정을 요구합니다.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군정적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범세계적 보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따라서 우리는 인도주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조미조약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평화의 이름으로 미합중국 정부가 거중조정의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호의를 발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동족의 생명을 건지며 또 미국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생명 및 재산이 위태로울 것을 보호하십시오.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미국 국민이 도의적 내지 물질적 원조를 우리에게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귀 국민의 동정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귀 국민은 참으로 자유와 국제 정의의 선봉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¹⁹⁾

18)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42.

19) 이변역문은 김영우 편, 『대한독립혈전기』 22-24쪽에 수록되어 있다; 유영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11-12에서 재인용.

이 호소문은 이승만이 1919년 3.1운동 후 국내는 물론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지도자로 추대되는 가운데 작성한 것인데, 이 호소문은 그의 친미외교독립 노선을 잘 집약한 글이다. 이 글은 이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혹은 ‘임시대통령’의 자격으로 작성한 다른 외교문서들의 원형을 이루게 되었다.²⁰⁾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을 지극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외교적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19년 6월 10일에 이승만이 ‘대한공화국임시정부 국무총리’의 명의로 미 국무장관 랜싱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이승만이 친미 외교독립 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본인은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처음으로 ‘문화개방 조약’을 맺은 미국 국민들에게 맨 먼저 교환을 제의합니다. 한미 양국의 대표자들에 의해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되고 귀국 상원의 비준을 거쳐 1883년 6월 4일 아더 대통령에 의해 발효가 선포된 이 조약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많은 계명적 및 물질적 혜택을 재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귀국 국민에게도 약간의 호혜적인 혜택을 끼쳤으리라 사료됩니다. 본인은 한국 국민이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이 조약에 제시된 우호, 선의 및 친선의 표현들을 모두 재확인하고 조약 내 모든 조항의 정신과 문구를 진지하게 준수할 의도 내지 의사를 갖고 있음을 귀하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²¹⁾

이 글에서 이승만은 한국은 공화국이며 대의제를 채택한 나라로 미국

20) 유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13.

21) 1919년 6월 10일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의 명의로 미 국무장관 랜싱에게 보낸 편지; 유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16-17에서 재인용.

에게 극동의 형제국가이며 한국인이 숭상하고 모방하며 의지할 위대한 나라라 주장한다. 그리고 1882년 미국과 한국이 최초로 맺은 조미조약은 한국인들에게 계명적·물질적 혜택을 주었으며, 자신이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조약을 재확인하고, 조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하여 미국에 대한 선린 우호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더 나아가 이승만은 이미 언급한 〈미국을 향한 호소문〉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독립노선을 지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한국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미국 국민은 당연히 한국을 도와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한 이 호소문에서 한국인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소청할 권한이 있는데, 그 이유는 1882년 조선과 체결한 조미조약의 제 1조 제 2항 때문이라고 한다. 즉, 1조 2항에 의하면, 다른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부당하고 억압적’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 미국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거중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더 대통령 집권기인 1882년에 여러분의 정부는 한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조약은 1883년에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의 제 1조에서 미국은 “만일 별국이 일방 정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타방 정부는 그 사건의 통지를 받는 대로 원만한 타결을 가져 오도록 거중조정을 함으로써 그 우위를 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²²⁾

22) 유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11-12에서 재인용; 이 번역문은 김영우 편, 『대한독립혈전기』 22-24쪽에 수록되어 있다.

1919년에 작성한 이 문서에서 이승만은 조미조약 제 1조 제 2항을 인용하면서 미국 정부 지도자 내지 미국 국민들에게 조약 의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은 이미 한성감옥에서 있을 때 미국에 대하여 호의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여, 1919년 3.1운동 이후 작성한 문서들을 통해 그의 친미외교독립노선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19년 4월에 발표한 <미국을 향한 호소문>에서는 조미조약에 나타난 미국의 거중 조정 의무를 통해 한국의 문제에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1919년 6월에 작성한 미국의 국무장관 랜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미국과의 선린우호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글들은 친미주의적 독립방략을 통해 이승만이 미국을 움직이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

1. 자유와 평등의 실현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문을 연 배재학당은 1887년 2월 고종황제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 후 배재학당은 영어를 배워 출세하고자 하는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몰려왔다. 이승만도 과거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후, 영어를 배워 출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배재학당에 입학하였다. 배재학당에서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서구 국가들인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영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정치제도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이승만은 배재학당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인간이 지상의 어떤 권력과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천부적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시대, 새로

은 정치 세계에 대한 ‘개안’의 체험을 하였다.²³⁾

이러한 ‘정치적 개안’의 체험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곧바로 독립협회에 가담하게 하였고, 협성회를 조직하여 ‘서구식 민주주의’를 몸소 훈련하여 터득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모방한 「매일신문」을 창간하여 천부인권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전파하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모색하였다. 이승만은 「매일신문」을 발행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매일 신문을 이용하여 저 개인자유주의 주의를 제일 용감하고 강경한 모양으로 전도하였으니 백성들이 우리 신문을 매우 좋아하여 이 신문이 전국에 분전되었으며 정부는 비록 우리를 항상 위협하나 저 도처에 환영받는 군자를 감히 금지치 못하였더라.²⁴⁾

이승만이 고백하고 있듯이 「매일신문」의 발행은 개인의 자유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승만은 배재학당 시절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로부터 터득한 천부인권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사상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그리고 「매일신보」를 통해 적극 전파하고 실천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천부인권적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이승만에게 인본주의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 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소위 “박영효 쿠데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었고, 탈옥을 시도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하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배재학당 시절 선교사들의 설교를 떠올렸고, 그들로부터 배운 기도와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이승만은 옥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23)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42.

24) 이승만, “리승만 박사의 경험담”, 「신한민보」, 1919년 9월 20일

기독교로 개종 한 이승만은 1902년 10월 한성감옥에서 ‘옥중학교’를 설치하고 죄수들에게 배재학당에서 배운 교과과정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1903년 1월에는 ‘옥중 도서실’을 개설하여 죄수들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자신도 본격적으로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연구와 집필에 착수하였다. 이승만은 이 글들을 모아 「신학월보」에 발표하였다.²⁵⁾ 이 글에서 이승만은 처음으로 ‘자유’와 ‘평등’ 개념에 근거한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똑 같이 내시고 그 중에 똑 같은 권리를 주셨나니 이 권리를 차차 능히 제 몸을 다스리는 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능히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의 압제를 면치 못하는 법이라. 우리나라 사람이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여 피차 남의 압제를 무수히 당하며 필경 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권리를 보전키 어렵게 된지라. 예수교로 변화시키는 법이 아니면 독립하는 생각이 날 수 없는 고로 유지각한 이들은 다 대한 장래의 여망을 예수교회에 바라는 바라.²⁶⁾

그는 이 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천부인권적 ‘자유’와 ‘평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정치체제,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자주적인 독립 국가는 기독교 신앙으로 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그는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자주적

25)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54. 1903년 11월 「신학월보」에 수록한 “교회경략”에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요긴한 정략 4가지”를 정리하였다. 이는 자립, 자전, 자치의 네비우스의 3대 선교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일치와 연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있다.

26) 이승만, “교회경략”, 「신학월보」 1903년 11월.

인 독립국가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서구 기독교 국가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독립 국가들의 연합체가 세계평화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⁷⁾

그런데 이승만에 의하면, 이 세계평화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기독교적 국가이다. 그는 세계평화공동체를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구별하거나 압제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친 형제자매 같이 사랑하는’ 세계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추구하는 ‘천국’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지상에서 모든 민족이 ‘형제애’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종교운동’이었다.²⁸⁾ 그러므로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 뿐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으로 영·미와 같은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였다.

2. 구원론적 개인윤리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의 하나는 전통적인 개인의 신앙윤리이다. 이는 그가 1904년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새로운 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천도(天道)라 하였으며, 이 천도는 곧 기독교를 의미하였다. 그는 『독립정신』에서 천지만물의 창조주, 영혼의 존재, 사후 심판에 대한 믿음 등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를 받아들였을 뿐

27)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55.

28)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56.

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니 곳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천도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내고 평생에 남의 곤욕과 곤란을 받다가 필경은 세상 인민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사 천만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말아서 용서를 얻고 복을 받게 하셨나니 순전히 사랑함이 아니면 어찌 남을 위하여 몸을 바라기에 이르리오.²⁹⁾

이 글에서 이승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고전적 기독교 윤리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³⁰⁾ 따라서 이승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분”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값을 수 없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할 뿐이라. 천하에 의롭고 사랑하고 어진 것이 이에 더 지내는 것이 어디 있으리오. 이는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깨달아 착한 일을 스스로 아니하지 못함이라. 사람마다 두려운 뜻으로 악을 짓지 못하며 감사한 뜻으로 착한 일을 아니하지 못할진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중에서 어찌 평강 안락한 복을 얻지 못하며 이 잔인 포악한 인간이 곳 천국이 되지 않으리오. 이것이 곳 지금 세계상 상등문명국의 우등문명한 사람들이

29) 이승만, 『독립정신』(태양출판사, 1952), 234.

30)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62.

인류사회에 근본을 삼어 나라와 백성이 일제로 높은 도덕 지위에 이름이라.³¹⁾

이처럼 이승만의 초기에 저술인 『독립정신』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기초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개인윤리였다. 그러나 그의 고전적이고 전통적 개인 윤리는 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세계 곧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을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승만에게 있어서 고전적 기독교의 개인윤리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 곧 천국은 ‘피안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안락한’ 세상이었다. 그는 이러한 세상으로 영국과 미국을 들고 이들 국가들이 ‘세계상 상등 문명국’, ‘우등 문명한 사람들의 인류사회’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구원론적 개인윤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이타적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이다.

3. 역사 변혁적 사회윤리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는 역사 변혁적 사회윤리이다. 이승만은 1904년 8월 옥중에서 「신학월보」에 “대한교인의 힘쓸 일”이란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소극적 자세, 그리고 위기 타계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신앙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 영·미국이 세계에 제일 예수교를 많이 받드는 나라이다. 그 나라에

31) 이승만, 『독립정신』, 234.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 믿음이 독실치 못한 사람은 다 물론하고 그 중에 제일 교화 협소한 교사라도 만일 그 나라 권리나 백성의 이익 상에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다 우리는 나라에 상관이 없으니 교중 일만 주장하고 나라는 어찌 되던지 모른다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지니 우리는 애쓸 것 없다 하겠는가, 결단코 그렇치 아니하니 저마다 주야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며 일심으로 나서서 죽기까지 나아가는 일꾼들이 될지라. 만일 그렇치 아니하여 충군 애국이 무엇인지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 도모지 모르고 다만 제 몸 하나와 제 영혼 하나의 구원 얻는 것만 제일이라 할진대 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 한다 이를지라.³²⁾

이 글에서 이승만은 기독교인들의 현실 도피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독교인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나라의 권리나 백성의 이익 상 손해가 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일만 생각하고 나라는 어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께서 잘 도와 줄 것이니 우리는 애쓸 것이 없다고 하거나, 개인의 영혼만의 구원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의 근본 뜻’을 모르는 행위로 경계하였다.

나아가 이승만은 이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결박을 다 풀어놓으신 거시라”라 하면서 그 해방의 의미를 세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율법의 결박을 풀어주심이다. 이는 인간을 억압하는 ‘옛 법’ 곧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옛 법과 체제’를 혁파하려는 ‘변혁의 주의’가 자라난다고 보았다. 둘째로 예식의 결박을 풀어주심이다. 이승만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킨 것과 같은 어리석은 풍속, 곧 ‘옛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기독교

32) 이승만, “대한 교우들의 힘쓸 일,” 『신학월보』 1904년 8월

인들이 유교의 봉건적 전통과 폐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셋째는 모든 죄악에서 풀어주심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죄악’으로 자신만 이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보았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남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투쟁적 삶이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은 영원한 복을 바라며 이웃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³³⁾

이처럼 이승만은 해방의 의미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옛 질서와 체제, 옛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이기심으로부터 단절하는 역사 변혁적 사회 윤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불의한 질서와 체제를 변혁시키고,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유교적 전통과 관습을 타파하며, 이기적 삶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이타적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건설론에 나타난 사회윤리는 역사참여적이고 역사변혁적인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이승만은 1875년 조선의 몰락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서양의 근대학문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서구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배웠다. 이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사건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 사상을 공부하였고, 1904년 도미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33) 이승만, “대한 교우들의 힘쓸 일,” 『신학월보』 1904년 8월;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57-58.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0년 귀국하여 기독교 선교에 가담하여 YMCA에서 교사로 활동하였고, 다시 도미하여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교육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그 후 이승만은 1919년 3월 10일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15일에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출되었고, 그 후 4월 23일에 선포된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추대되었다. 이승만은 '민주집정'과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최고지도자 혹은 최고지도자중 한사람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소재지로 부임하지 않고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임시공사관 본부 및 대한공화국 통신부를 차려놓고 상해 임정과 별도로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택했던 국가건설의 전략은 '관대하고 위대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이른바 친미외교독립노선이었다.

이승만은 일찌기 배재학당과 독립협회 활동을 통하여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의 공화제를 체득하였다. 그는 한국을 '동양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미국식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론을 받아들여 기독교 입국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한성감옥에서의 기독교 개종 후 그는 「신학월보」와 그가 저술한 「독립정신」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1919년 3.1운동은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한국을 '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을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개인윤리, 그리고 역사 변혁적인 기독교

사회윤리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건설론은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참여하고,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윤하영 목사가 기도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승만이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택한 친미적 외교독립노선은 1945년까지 미국정부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략이었다. 더욱이 이승만의 친미적 외교독립노선의 결과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1948년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참고문헌

- 김창수,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미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 신앙과 국가건설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9. 3.
- 이승만, “대한 교우들의 힘쓸 일”, 『신학월보』, 1904년 8월
- 이승만, “리승만 박사의 경험담”, 『신한민보』, 1919년 9월 20일
- 이승만, 『독립정신』, 태양출판사, 1952.
- 이정식,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 유영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 이승만의 초기 행적과 사상”, 『이승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 신기영, 『한국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도서출판 동혁, 1995.
- 『뉴저지주 공보』(The State Gazette), 1919년 10월 14일.
- 『신한민보』, 1919년 4월7일.
- Korea Review*, 1:8, October 1919.
- Korea Review*, 1:9, November 1919.
- Oliver, R. T,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 Rhee, “Log Book of SR,” 1919년 10월 10일.
- Rhee, “Log Book of SR,” 1920년 6월 22일.

논문투고일: 2015. 06. 30.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국 문 초 록 •

이 글의 목적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민족운동에 나타난 국가건설론과 사회윤리를 다룬다. 이승만은 일찌기 배재학당과 독립협회 활동을 통하여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제를 체득하였다. 그는 한국을 ‘동양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미국식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론을 받아들여 기독교 입국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한성감옥에서의 기독교 개종 후 그는 〈신학월보〉와 그가 저술한 〈독립정신〉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1919년 3.1운동은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한국을 ‘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을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개인윤리, 그리고 역사 변혁적인 기독교 사회윤리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건설론은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국회에 참여하고,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윤하영 목사가 기도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승만이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택한 친미적 외교독립노선은 1945년까지 미국정부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략이었다. 더욱이 이승만의 친미적 외교독립노선의 결과 해방 후 1948년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주제어: 이승만, 기독교 국가론, 민주 공화제, 친미외교독립노선,
기독교 사회윤리
